

# 가족의 역사

유 경 희

(재단법인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

필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와 2선에서나마 사회봉사에 기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탐내지 않고 정부부처 모두가 기피만 하는 감투를 아직도 한 개 쓰고 있다. 굳이 거창하게 한국말로 옮겨본다면 국제표준화기구 제 46기술위원회(줄여서 ISO/TC46) 한국위원회 위원장이다. 예산 한 푼 없는 위원회가 지난 3년간 이름만 유지해 왔을 뿐이다.

어쩐 일인가? 금년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ISO/TC46 총회에 갔다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5월 12일부터 1주일간의 회의 참석에 분주했고 30여 주제 모두 추적할 수 없어서 ① 한글로마자 표기법 ② 세계국명, 지명 표기법 ③ 전자원고 작성법(전자출판) 등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들만 추적하고 나머지 주제는 모두 포기하였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고....

하루는 정부문서보관소(Public Records Office, PRO)를 견학했는데 여기서 “가족의 역사”찾기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았다. “Family History on your PC”라는 책자 등 몇권의 잡지를 구입하여 돌아왔다.

동행했던 국어 국문학 교수 한 분이 친절하게 나의 선조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해 주었다.

“연세가 드시면서 철이 드시는 모양이지요? 선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걸 보니.... 우리나라는 가문마다 ‘족보’란 것이 있어서 조상찾기는 아주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미국의 하바드 엔침 도서관에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족보를 모두 거두어 가서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존하고 있지요. 와그너 박사 같은 이는 이조 500년 동안에 시행한 과거에서 합격한 1만 5천명의 합격자를 성씨별로 본관별로 컴퓨터로 처리해서 보고한 일도 있지요. 해당 가문의 자랑이라나요?” 이에 대답했다.

“국명지명 코드 표준화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영국 보학(족보)의 대가 콜린 차프만(Colin Chapman)이 국명지명코드 표준화의 영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영국지명이 차프만 코드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성씨와 지명이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나는 고향이 대구의 동촌비행장 한 가운데입니다. 어릴때에는 유

광리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주로 이외에는 흔적도 없지요. 그나저나 문화 류(유)씨가 언제, 왜, 여기에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나의 5대조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미국의 흑인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의 7대조인 쿤타킨테의 이름을 정부문서보존소에서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동물(말)의 목록에서 찾아내어 뿌리를 찾아내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은 바 있지만, 오늘 아침 TV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조상이 아일랜드의 피슬리에 살았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한국 족보 모두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데는 너무 엄청난 수고가 들어서 이 나이에 그런걸 하겠어요? 나는 우선 나의 가까운 조상님들의 생활양식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산화해볼 작정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국명지명 코드에 관한 일이 걱정이 된다. 이번이 ISO/TC46/WG2의 제 16차 회의였는데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독일 식민지 시대의 명칭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명칭의 상충, 독립 후에 공식 명칭을 제정하는데 도처에서 분쟁이 생기고 있다. 조어도(중국식)와 첩각열도(일본식)의 명칭에서 심각한 분란이 예측된다. 독도(한국)와 죽도(일본)의 분쟁도 예

상되는 분쟁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백만번 노래해 봐도 국제표준 지명 및 코드의 원안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동해(한국)와 일본해(일본)의 국제 명칭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역사 책에서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죽은 것”으로 가르쳐 왔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엘바섬이 없어졌다고 한다. 수정교육을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콘스탄티노플이란 이름이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암만이 필라델피아가 되었다가 다시 암만(요르단의 수도)으로 되돌아 온 일, 뉴욕의 옛 이름이 뉴 암스텔담이었다는 사실, 레닌그라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뀐 사실, 서울은 어떤가? 경성, 한성 등의 역사적 명칭을 갖고 있지 않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도 이름부터 먼저 짓는 것이 좋다. 이름이 오래 가니까 그 소프트웨어의 수명이 대체로 길었다.